

# 가장 깨끗하고 깔끔한 나라

용인 산양초등학교

5학년 권현빈

나는 내가 생각할 때에도 참 깔끔하다. 조금만 음식에서 냄새가 나거나 색이 이상하면 절대 그것을 먹지 않고 외출을 하고 나면 반드시 손을 30초 이상 씻는다. 요즘에는 미세 먼지가 너무 많아서 잠깐 밖에 있다가 들어오더라도 내 몸에 붙은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 모든 노력을 동원한다.

하지만 아무리 청결을 강조해도 미세 먼지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. 우선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 심각성을 잘 못 느끼고 또 외출 후 샤워를 했다고 해서 미세먼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.

나는 그래서 미세 먼지를 생각할 때마다 세균이 떠오른다. 손과 발뿐만 아니라 온몸에 세균이 있을 것 같고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려 하면, 미세먼지가 각종 질병과 심지어 치매까지 일으킨다는 말에 벌벌 떨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.

어른들은 이 모든 책임이 중국에 있다고 말한다.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. 하지만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. 아무리 중국 정부에 부탁을 한다고 해도 당장 공장 문을 닫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세 먼지를 없앨 수는 없다. 또 우리나라도 공장에서 매

연이 나오고 자동차 중에서 특히 경유차에서 매연이 나오는데, 모든 잘못을 중국으로 돌릴 수 없다.

그래서 나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제안한다. 먼저 우리나라에 있는 미세 먼지의 총량을 월별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미세먼지의 총량을 계산하여 빼는 것이다.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중국의 미세 먼지가 어느 정도의 양인지를 알 수 있다. 그렇게 되면 중국이 얼마만큼의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지가 데이터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확실하게 주장할 수가 있고 중국 측으로부터 대형 공기청정기를 가동할 것을 명령하여 우리의 환경을 보존할 수 있다.

나 혼자 깔끔하게 산다고 해서 깔끔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.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운전을 잘 해야 우리 모두가 사고 없이 오래 살 수 있는 것처럼 미세먼지도 함께 노력할 때에 푸른 하늘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것이다.

미세 먼지가 많은 날이 점점 늘어나자 맑은 날이 올 때면 그 날이 너무도 고맙다. 그런 날에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작은 매연도 하늘에게 매우 미안할 것 같다. 건강을 잃으면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것처럼 이제야 우리는 공기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. 어서 빨리 예전으로 돌아가 시원하고 깨끗한 공기를 마셨으면 좋겠다. 가장 깨끗하고 깔끔한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.